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대훈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과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

201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노은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과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

조 대 훈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노 은 혜

인 준 서

노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예비교사가 소수자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인구·심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과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유형(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따라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별 배경(성별, 월평균 가족소득, 소수자 지인 유무)에 영향을 받는가?

셋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프로그램 수강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권위주의 성향과 종교적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사회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10개 사범대학교의 사회교육을 전공하는 3, 4학년 학생이었다. 측정도구로는 그동안 소수자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사회적 거리감' 척도와 권위주의 성격 척도인 APS(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내현적-외현적 성향 척도(Age-Universal I-E Scale)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T 검정, ONE WAY ANOVA, 반복측정법(Repeated Measure ANOVA), 단계선택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수강 경험과 수강 횟수는 사회과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은 5개 유형의 소수자 중 성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여성예비교사는 남성예비교사에 비해 성 소수자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에는 권위주의 성향과 지인 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지인이 있을 경우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고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성향, 지인 여부, 성별, 내현적 종교 성향, 외현적 종교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또는 내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각각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느꼈다. 그리고 지인이 있을 경우 또는 외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 경우 각각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비교사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노동자와 성 소수자보다 더 가깝게 느꼈고 외국인 결혼 이주자를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사회과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예비교사가 소수자 유형별로 왜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다문화교육이 사회적 소수자의 하위 집단별로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성소수자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평균값이 높은 결과를

비추어 보아 이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자 관련 수업이 예비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하고 사회과 예비교사의 개인적 배경과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5
1.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 및 관련 연구 결과	5
2. 사회적 소수자와 다문화교육에서의 교사 연구	7
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10
4. 종합: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12
III.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14
1. 종속변인	14
2. 독립변인	17
3. 측정도구	19
1) 권위주의 성격 척도(APS)	19
2) 종교 성향 척도	20
4.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21
5. 자료 분석 방법	24
IV. 조사결과분석	25

1. 주요 명목변인 별 사회적 거리감 분석	25
1) 지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분석	26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분석	28
3) 수강 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분석	29
2.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 비교	32
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회귀분석 모형	35
V. 요약 및 논의	39
1. 연구 결과 요약	39
2. 주요 발견점에 대한 논의	40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4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II-1> 종속변인인 사회적 거리감 구성 및 문항의 신뢰도	15
<표 III-2> 사회적 거리감 척도 문항 예시	16
<표 III-3> 독립변인의 구성 및 문항의 신뢰도	17
<표 III-4> 권위주의적 성향 척도 문항 예시	20
<표 III-5> 종교 성향 척도 문항 예시	21
<표 III-6> 연구 대상자의 표집 분포	22
<표 III-7>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22
<표 IV-1> 5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 별 사회적 거리감 기술통계량	25
<표 IV-2> 지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T 검정	26
<표 IV-3>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T 검정	28
<표 IV-4> 수강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T 검정	29
<표 IV-5> 수강 경험 횟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일원배치분산분석 ..	31
<표 IV-6> 사회적 거리감 반복측정	33
<표 IV-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회귀분석 ..	36

I.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고 그 구성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2014년 6월 한국의 외국인 입국자 수 통계치를 보면 전년 동월에 대비해 20.6%가 증가하였다.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 역시 전년에 대비해 2014년 상반기에 1.6%가 증가하였는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 국적과 입국이유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주로 결혼이민을 통한 입국이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 한정되었다. 이에 반해 이제는 아시아 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의 영미 권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유럽 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 예술 활동, 기업투자, 경영, 유학 등의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 이로 인해 어느 곳을 가든지 외국인을 쉽게 만나볼 수 있고 MBC ‘진짜 사나이’, KBS의 ‘나 혼자 산다, JTBC의 ‘비정상회담’등 미디어를 통해서도 외국인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많이 유입되면서 한국에서 하층계급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사회적으

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점차 사회적 소수자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들 소수자는 더 이상 접하기 어려웠던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한건수, 2008, pp.146).

하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국 사회는 문화 다원주의 관점이 아닌 문화 동화주의 관점에서 소수자들을 포섭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오경석, 2007; 이민경, 2008). 이런 문화 동화주의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인기 프로그램 등에 나오는 외국인의 모습은 한국말이 어눌하지만 열심히 하려 애쓰는 외국인, 김치·된장찌개를 한국 사람보다 좋아하는 외국인,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가족에게도 헌신적인,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보여주는 외국인 등이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각각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없앤 채,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찬미하며 한국에 동화되려 애쓰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다문화교육의 관점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주도하에 만든 교과서의 다문화 부분은 여전히 주류 문화의 입장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타자로서 바라본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조대훈, 2014).

한국 다문화 사회가 가지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우리와 다른 “타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 “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이다.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각 소수자 집단 별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연구되고 있

다(송관재 외, 1997; 김상학, 2004; 구정화, 2013). 즉 같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범주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은 다문화 시민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범주가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집단으로 묶어 일반화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소수자의 하위 집단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과 또 이에 대해 일반 시민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집단별로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예비교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는 다문화교육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비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 통합을 이루어 가려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예비교사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다문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예비교사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예비교사 교육에 가진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 쓰였던 Bogardus 측정도구에 바탕을 둔 김상학(2002)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되 연구의 목적에 맞게 5점 척도를 설문 문항에 적용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민경환(1989)이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조대훈(2011)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권위주의 성격 척도를 나타내는 APS(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종교적 성향 척도로는 Gorsuch와 Venable(1983)의 내현적-외현적 성향척도를 수정하여 조대훈(2011)의 연구에 활용되었던 내현적-외현적 성향 척도(Age-Universal I-E Scale)를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유형(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따라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는 어떠한가?
2.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별 배경(성별, 월평균 가족소득, 소수자 지인 유무)에 영향을 받는가?
3.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프로그램 수강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권위주의 성향과 종교적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 및 관련 연구 결과

사람은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 단위로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일생을 보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집단의 구성원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가지는 심리적인 거부감 또는 지지의 정도는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거리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점차 다원화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편견과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적합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 개념은 개인 또한 집단 간에 가지는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태도의 행동적 측면을 나타낸다(김상학, 2004). 다시 말해 개인 또는 집단들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를 태도의 친밀성이나 거주지, 사회적 관계의 허용 정도 등을 측정해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 최초로 '사회적 거리감'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던 Bogardus(1933)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인 이해의 상이한 정도라고 정의된다. Bogardus는 연구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던 다양한 민족과 인종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결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찬반 여부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윤인진, 2010). 이후 Bogardus 척도는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다. 이 때 사용된 항목은

각각 위계적 서열로 구성된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로 이루어졌으며 상위 항목에 찬성 시 하위 항목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Parrillo & Donoghue, 2005; 이명진 외(2005)에서 재인용).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 상대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태정(2009)은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은 외국인을 동료, 이웃, 친구보다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더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대학생의 민족적 정체성이 의식 속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낮은 반면에 동남아시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사회적 거리감에 국가적 위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홍봉선·아영아(2011)는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를 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거리감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미국과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낮은 반면에 동남아 및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경·김창숙(2011)의 연구는 미국 등 서양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낮은 반면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는 우리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인종에 대한 편견과 자국민 중심주의적 사고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개별 소수 집단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 집단 전체를 상대로 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를 살펴보면 송관재 외(199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오점 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인관계 신뢰도가 외적 통제자들보다 높고 지각된 통제감도 높은 내적 통제자들이 사회적 오점 보유자들을 더 가깝게 느꼈다. 김상학(2004)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의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손상희, 2005; 최원규·박현정, 2009; 고은·목홍숙, 2013)등 개별 소수자 집단을 상대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앞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과 차별은 소수자 집단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수자 집단을 유형별로 나누어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소수자 집단별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또 개별 소수자 집단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하위 범주로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의 경우 인종, 국가별 구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나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주로 구분되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 내에서도 주로 대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문화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2. 사회적 소수자와 다문화교육에서의 교사 연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국제 결혼으로 인해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가 되었지만 아직 사회의 근저에는 순혈주의, 한민족의 신화가 깔려 있어 타 문화와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 의식이 강하고 차별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문화 교육 강화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래 다문화교육은 미국, 캐나다와 같은 다민족 국가들이 문화 간, 민족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교육 정책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다양한 다문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어 교실 개설, 학교에서의 통합 학급 운영 등을 하고 있고 단기 혹은 중장기의 연수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실질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모경환 2009).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직된 교과 내용을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취하지 않는다. 자신의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함께 섞어 새로운 교수법적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교육과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차경수·조대훈, 2012).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 교사는 공식적,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조대훈, 2006)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와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 예비교사와 관련된 본 연구와 관련해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우(2007)가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사회과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의 타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접촉과 관심, 지식의 정도가 매우 낮게 나왔는데 예비교사에 대한 다문화적 지식과 경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구정화(2013)은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층 등으로 매우 범주가 좁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범위를 넓혀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대훈(2011)은 동성애에 대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교수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는 권위주

의 성향, 성차(sex difference), 동성애 지인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접촉과 경험이 교사의 다문화 교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문화적 효능감¹⁾을 조사한 최충욱·모경환(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초, 중등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 연구에서 교사의 다문화 지식과 경험은 적지만 근무 중인 학교에서 접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반해 다문화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권미은 외(2012)의 예비특수교사를 상대로 한 다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경험이 많고 다문화 관련 수강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선미·성민선(2011)은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수업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연구들은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적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을 보여준다.

모경환·황혜원(2007)은 사회과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교사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황혜원(2012)은 다문화 관련 수업을 수강했던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더욱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다문화 교육에서 앞으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정우(2007), 권미은(2012), 황혜원(2012) 외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박윤경(2007), 김진철·장봉석(2010), 천지영·김경은(2013)의 연구가 있는데 황혜원(2012)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비교사의 다문화 교육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1) 다문화적 효능감은 다문화적 교수 환경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최충욱·모경환, 2007).

미흡한 편이다. 또한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또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소수자 집단 유형 연구에 대부분 그치고 있어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 유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사회적 거리감은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 중 행동적 측면에 해당한다(김상학, 2004). 특히 다문화 교육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중요한 이유는 다문화와 관련한 정서적 요인 또는 감정과 겹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나 새터민과 같은 소수자 집단에 대해 관용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국민으로의 허용 또는 관계맺음의 허용 여부에서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인태정, 2009). 그렇다면 사회과 예비교사들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성향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언급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거리감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보수 혹은 진보적 성향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구정화, 2013). 인태정(2009)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할수록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왔다. 김상학(2004)은 인구학적 특징 혹은 가족적 배경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대훈(2011)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에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둘째, 종교적 성향을 들 수 있다. 김상학(2004)에서는 종교적 성향을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 없음으로 두고 각 종교적 성향에 따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해 유난히 거리감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 때 단순히 종교를 믿는 여부 혹은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종교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몰입도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는데 이는 조대훈(2011)의 연구에서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대훈(2011)의 연구는 단순히 종교 유무나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종교의 내현적, 외현적 성향을 변인으로 두고 조사하였다.²⁾ 연구 결과 내현적 종교 성향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변인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교육변인에는 다문화 관련 수업 수강 여부를 들 수 있다. 소수자 교육은 학생들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한동균, 2009). 황혜원(2012)은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가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미은 외(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관련 강좌를 수강한 예비특수교사가 수강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보다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조대훈(2011)의 연구에서는 동성애 관련 수강 경험이 사회과 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보고하기도 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편견 연구의 오래 된 가설 중 하나인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

2) 내현적 종교 성향은 종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에 충실한 삶을 사는 태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외현적 성향은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종교에서 물질적 혹은 정신적 가치를 얻기 위해 종교를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조대훈, 2011).

에 근거한 접촉 경험 또는 지인 유무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송관재(1997) 외의 연구에서는 주변 인물 중에 사회적 오점 보유자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오점 보유자들에 대해 거리감을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김상학(2004)은 소수자 집단과의 접촉 경험이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정우(2007)는 예비교사들의 타 인종·민족에 대한 접촉이 낮고 따라서 다양한 집단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교사 양성과정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태정(2009)은 외국문화 접촉 경험, 외국인 친구가 있는 집단이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왔다. 조대훈(2011)의 연구에서도 동성애 지인의 존재가 교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특정 소수자에 대한 접촉 경험이 유의미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유형이다. 송관재 외(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다른 사회적 오점 보유자들보다 약물중독자, 윤락녀, 전과자, 정신 지체인들에 대해 거리감을 멀게 느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사람들이 개인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을 꺼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크게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 장애인으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의 크기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의 순서로 점차 커져서 차별의식이 소수자 집단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구정화(2013)는 다른 다문화 집단 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 제도의 도입이 찬성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4. 종합: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위의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예비교사의 다문화 교육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그동안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특정 유형의 소수자 집단에 한정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등에 의해 다문화 사회를 급격히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 유형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이 사회 내의 계층 구성에서 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각각 다른 차별을 당함으로 인해 사회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 유형을 연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다문화교육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교육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수자 인식에 대한 예비교사의 연구가 매우 미흡했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구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 유형별로 교사가 가지는 구체적인 편견과 태도를 아는 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주로 나누고 있는 5가지 유형 즉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로 나누어 유형별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또한 각각의 유형에 대해 사회과 예비교사가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에 그들의 기초 배경과 다문화교육 경험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재 사회과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아울러 도출해 내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제기된 문제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사회과 예비교사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갖는 인식을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을 활용해 조사하되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대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주민, 동성애자, 장애인으로 나뉘는 기존의 연구와 현 경향을 참고해 소수자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 도구는 Bogardus 측정 도구를 기초로 한 김상학(2004)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되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성향은 기존의 척도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대훈(2011)이 연구에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활용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과 예비교사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주요 변인(예: 성별, 정치적 성향, 종교,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수업 수강 여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유형, 사회적 소수자 접촉 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 종속변인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상학(2002)의 연구에 쓰였던 문항들을 활용했다. 김상학은 그의 연구에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에 널리 쓰였던 Bogardus, Westie 등의 측정 문항들을 사용하되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을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로 보고 기존의 문항을 재구성하

였다고 밝혔다. 김상학(2002)의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구성되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점은 35점에서 210점의 분포를 보이며 총점 값이 낮을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각 문항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 맺음의 허용’ 정도가 높음을 뜻하며,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로 문항의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표 III-1> 종속변인인 사회적 거리감 구성 및 문항의 신뢰도

범주	변인	변인의 설명	문항 수	Cronbach's α
종속 변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맺음의 허용 정도	7문항	.93
	외국인 결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결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맺음의 허용 정도	7문항	.9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맺음의 허용 정도	7문항	.9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맺음의 허용 정도	7문항	.96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 맺음의 허용 정도	7문항	.96

<표 III-2> 사회적 거리감 척도 문항 예시

설문지 문항번호	문항 내용
1	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가 같은 동호회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웃하여 산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내 가족의 배우자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 변인과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독립변인의 구성 및 문항의 신뢰도

범주	변인	변인의 설명	문항 수	Cronbach's α	
독립 변인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문항		
	월평균 가족소득	① 200만원 이하 ② 200만원~300만원 ③ 300만원~400만원 ④ 400만원~500만원 ⑤ 500만원~600만원 ⑥ 600만원 이상	6문항		
	권위주의적 성향(정치적 성향)	- 한 개인이 얼마나 편견을 쉽게 가지는지의 정도 (<표 III-4 참조>)	33문항	.89	
	종교적 성향	내현적 성향	- 종교를 개인적인 성찰과 신과의 만남 등으로 이해하고, 종교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 (<표 III-5 참조>)	8문항	.84
		외현적 성향	- 종교를 사회적인 관계 맺음,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그를 통한 이익 얻음의 수단으로 이해 (<표 III-5 참조>)	10문항	.82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수업이나 특강 수강 여부	① 없다 ② 있다 (②의 '있다'의 경우) ³⁾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이상	2문항 3문항		

범주	변인	변인의 설명	문항 수	Cronbach's α
독립 변인	전공 배경	①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 주 전공자 ② 사범대학 타 학과 전공자이면서 사회과 복수전공자 ③ 일반대학 교직 이수자이면서 사회과 복수전공자	3문항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별 지인 유무	① 없다 ② 있다	2문항	

첫째, 성별, 월평균 가족 소득 등의 기초 배경 변인을 포함시켰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수업 수강 경험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수업 수강 여부와 그 횟수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셋째, 전공 배경을 독립 변인에 포함시켰다. 전공 배경은 일반사회교육 주 전공자를 하되, 복수전공자와 교직이수자가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을 고려해 문항에 포함시켰다.

넷째, 접촉 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주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소수자 지인 유무”를 독립 변인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로 예비교사가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 측정을 위해 문항을 더 세분화하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

3) 강의를 들은 횟수는 1회 6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민, 성소수자⁴⁾로 나누고 각각의 소수자 지인 유무를 독립 변수로 추가하였다.

다섯째 정치적 성향을 독립 변인으로 포함시키되 권위주의적 성향을 묻는 문항으로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는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섯째 종교적 성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독립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는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측정도구

1) 권위주의 성격 척도(APS)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①매우 보수, ②보수, ③중도, ④진보, ⑤매우 진보 의 5문항 척도로 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대훈(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권위주의 성격 척도인 APS(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조대훈(2011)은 그의 연구에서 민경환(1989)이 Adorno 등(1950)이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던 권위주의 성격 척도인 APS(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권위주의 성격 척도(APS)는 총점 값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권위주의적 성

4) 김상학(2004)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가 외국인 노동자와는 다른 경로로 결혼 이민자로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구성한다는 인식하에 외국인 결혼 이주자를 소수자 집단에 추가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자 이외에 다양한 성적 소외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틀어 성 소수자 집단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향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4> 권위주의적 성향 척도 문항 예시

설문지 문항번호	문항 내용
1	우리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10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12	아이가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21	요즈음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만 한다.
32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사원이다.

2) 종교 성향 척도

선행 연구에서는 종교적 성향 척도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 없음의 5문항 척도로 주로 구성되어왔다. 하지만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교에의 몰입도에 따라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척도가 아닌 조대훈(2011)의 연구에 사용된 내현적-외현적 성향 척도(Age-Universal I-E Scale)을 사용하였다. 조대훈(2011)은 그의 연구에서 Gorsuch와 Venable(1983)이 만든 내현적-외현적 성향 척도의 수정안을 번안하여 사용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조대훈(2011)의 연구에서 쓰였던 3점 척도를 사용했는데 총점값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내현적-외현적 종교 성향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III-5> 종교 성향 척도 문항 예시

설문지 문항번호	문항 내용
1	나는 내가 믿는 종교에 관련된 책 읽기를 좋아한다.
4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나에게 중요하다.
9	나에게 있어 종교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13	내가 비록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
16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주로 예배당에 간다.

4.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사회과 예비교사(일반사회교육) 및 일반사회 복수전공자와 교직이수자이다.⁵⁾

해당 대학교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10개의 대학(성신여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인하대, 강원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이루어졌다. 표본 학교 명단이 확정된 후 연구자는 지도 교수의 도움을 얻어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해당 학교를 찾아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리의 한계 상 직접 가지 못하는 곳은 전화로 해당 학교의 사회교육학과 교수와 조교에게 연구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반송봉투 및 기념품과 함께 설문지를 발송했다.

5)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수강 여부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 4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3, 4학년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업시간을 설문조사 시간으로 택했다.

설문조사 결과 확보된 설문대상의 표집 분포는 아래의 <표III-5>와 같다.

<표 III-6> 연구 대상자의 표집 분포

학교 별	학교 소재지별								합 계
	서울	경기 도	강원 도	경상북 도	경상남 도	충청북 도	전라북 도	제주도	
	성신여대 이화여대 서울대	인하 대	강원 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	
표 집 수	90	43	21	37	44	28	15	15	29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변인별 분포는 아래에 제시한 <표 III-6>과 같다.

<표 III-7>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결측지는 제외함 / 단위: 명, %)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91	65.2
	남성	100	34.1
학년	1학년	1	0.3
	2학년	4	1.4
	3학년	154	52.6
	4학년	132	45.1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종교	불교	34	11.6	
	개신교	59	20.1	
	천주교	29	9.9	
	기타종교	2	0.7	
	무교	167	57.0	
전공배경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 전공자	274	93.5	
	사범대학 타 학과 전공자이면서 사회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자	13	4.4	
	일반대학 교직 이수자 이면서 사회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자	3	1.0	
강의 경험	없다	101	34.5	
	있다	190	64.8	
강의 횟수	1~2회	102	34.8	
	3~4회	55	18.8	
	5~6회 이상	32	10.9	
사회적 소수자 유형별 지인 여부	외국인 노동자	없다	268	91.5
		있다	23	7.8
	외국인 결혼 이주자	없다	223	76.1
		있다	67	22.9
	장애인	없다	179	61.1
		있다	111	37.9
	북한이탈주민	없다	275	93.9
		있다	16	5.5
성 소수자	없다	242	82.6	
	있다	49	16.7	
월 평균 가족소득	200만원 이하	13	4.4	
	200만원~300만원	61	20.8	
	300만원~400만원	84	28.7	
	400만원~500만원	44	15.0	
	500만원~600만원	31	10.6	
	600만원 이상	55	18.8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는 표 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여학생의 비율이 65.2%, 남학생의 비율이 34.1%였고, 3학년의 비율은 52.6%, 4학년의 비율은 45.1%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강 경험 여부이다. 연구 대상을 주로 3, 4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소수자 인권 관련 수강과 관련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4.5%라는 적지 않은 수치가 수강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인 여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로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편중된 분포를 이루고 있어 본 연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PASW 18.0 버전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각 변인별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T 검정과 집단 간 평균차 검증인 ONE 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회과 예비교사가 각 유형별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법(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인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독립변인(성별, 소수자 집단 유형별 지인여부,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강의 수강 여부와 강의 수강 횟수, 권위주의 성향, 외현적 종교성향, 내현적 종교 성향)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조사 결과 분석

1. 주요 명목변인 별 사회적 거리감 분석

5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 별 사회적 거리감 점수에 대하여 주요 명목 변인인 소수자 집단 유형별 지인 여부, 성별, 소수자 인권 관련 강의 경험 여부, 강의 경험 횟수 등에 따라 T 검정 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ANOVA)⁶⁾을 실시했다.⁷⁾

<표 IV-1> 5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 별 사회적 거리감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N
외국인 노동자	32.29	7.12	290
외국인 결혼이주자	34.22	6.86	290
장애인	33.90	6.61	290
북한이탈주민	33.17	7.98	290
성 소수자	31.70	9.45	290

5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의 기술통계량 결과는 위

6) T 검정 분석은 두 집단 간 평균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 통계적 분석법이고 세 집단 이상 평균 간 차이 검증에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한다(김효창, 2013).

7) 모든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의 표 IV-1과 같다.

1) 지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분석

<표 IV-2> 지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T 검정

	지인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값
외국인 노동자	없다	268	31.71	7.06	-4.17***
	있다	23	38.00	5.20	
외국인 결혼 이주자	없다	222	33.30	7.07	-4.70***
	있다	67	37.01	5.18	
장애인	없다	179	32.80	7.04	-3.74***
	있다	111	35.56	5.44	
북한이탈주민	없다	275	32.89	8.04	-3.71***
	있다	16	37.50	4.58	
성 소수자	없다	241	30.86	9.60	-3.95**
	있다	49	35.71	7.43	

주: * = p<.05, ** =p<.01, *** = p<.001

분석 결과, 첫째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지인 여부에서 유의수준 0.05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에서 지인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17). 외국인 노동자 지인이 없는 경우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점수는 31.71이고 있는 경우의 평균 점수는 38점으로 나타났다. 즉, 지인이 없는 경우보다 지인이 있는 경우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둘째 외국인 결혼 이주자 집단의 지인 여부에서는 유의수준 0.05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에서 지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70$). 지인이 없는 경우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점수는 33.30이고 있는 경우의 평균 점수는 37.01로 외국인 결혼 이주자 지인이 있는 경우, 지인이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거리감 점수가 크기 때문에 지인이 있는 경우 이들 집단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집단의 지인 여부에서 유의수준 0.05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에서 지인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4$). 지인이 없을 때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점수는 32.80, 지인이 있을 때 평균 점수는 35.56이다. 즉 지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지인 여부에서 유의수준 0.05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에서 지인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1$). 지인이 없을 경우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 점수는 32.89이고 있는 경우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 점수는 37.50으로 지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거리감 점수가 더 크므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섯째, 성 소수자 집단의 지인 여부에서 유의수준 0.05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에서 지인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95$). 성 소수자 지인이 없는 경우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 점수는 30.86이고 있는 경우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 점수는 35.71으로 성 소수자 지인이 있을 경우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 지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5개의 집단 유형 모두 지인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촉

경험이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접촉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분석

<표 IV-3>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t 검정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외국인 노동자	여자	191	31.91	7.23	-1.00
	남자	100	32.79	6.94	
외국인 결혼 이주자	여자	190	34.41	6.75	.75
	남자	100	33.77	7.07	
장애인	여자	191	33.67	6.39	-.76
	남자	100	34.28	6.99	
북한이탈주민	여자	191	32.82	7.96	-.97
	남자	100	33.77	7.95	
성 소수자	여자	190	33.17	8.41	3.52**
	남자	100	28.86	10.60	

주: * = p<.05, ** =p<.01, *** = p<.001

분석결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성별 영향력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p>0.05). 유일하게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2). 성 소수자 집단에서 여성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 점수가 33.17, 남성이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점수

28.86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 예비교사가 남성 예비교사보다 성 소수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 달리 성 소수자 집단에서만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애자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서영석 외, 2006; 조대훈, 2011)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3) 수강 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분석

<표 IV-4> 수강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t 검정

	사회적 소수자 개념과 관련된 수강 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외국인 노동자	없다	101	32.66	7.01	.79
	있다	190	31.97	7.20	
외국인 결혼 이주자	없다	101	34.60	6.30	.76
	있다	189	33.96	7.14	
장애인	없다	101	34.48	6.26	1.13
	있다	190	33.56	6.77	
북한이탈주민	없다	101	32.82	7.53	-.50
	있다	190	33.32	8.19	
성 소수자	없다	100	33.04	8.07	1.90
	있다	190	30.97	10.02	

주: * = p<.05, ** =p<.01, *** = p<.001

수강 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분석결과 외국인 노동자 집단, 외국인 결혼 이주자 집단,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p>0.05$).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 개념과 관련된 수강 경험은 사회과 예비교사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교육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소수자 인권 관련 교육이 교육의 본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는 소수자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교육을 담당해야 할 사회과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강의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표 IV-5> 수강 경험 횟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일원배치분산분석

	수강 횟수	N	평균	표준편차	F값
외국인 노동자 (FL_TOTAL)	0	103	32.67	6.93	1.43
	1	102	31.11	7.49	
	2	55	33.33	6.47	
	3	32	32.56	7.58	
외국인 결혼 이주자 (MI_TOTAL)	0	103	34.62	6.25	.81
	1	101	33.35	7.59	
	2	55	34.70	6.74	
	3	32	34.69	6.47	
장애인 (HD_TOTAL)	0	103	34.53	6.24	1.67
	1	102	32.74	6.88	
	2	55	34.33	6.88	
	3	32	34.81	6.09	
북한이탈주민 (NK_TOTAL)	0	103	32.89	7.50	.86
	1	102	32.53	8.34	
	2	55	34.00	8.58	
	3	32	34.72	7.08	
성 소수자 (SM_TOTAL)	0	102	33.35	7.93	1.70
	1	102	30.54	10.30	
	2	55	30.89	10.19	
	3	32	31.69	9.33	

주: * = p<.05, ** =p<.01, *** = p<.001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강의 경험 횟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일원배

치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강의 경험 횟수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5가지 집단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p>0.05$). 따라서 강의 경험 횟수는 위의 소수자 인권 관련 강의 경험 유무와 마찬가지로 사회과 예비교사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분분한데, 소수자 집단 유형별로 예비교사들이 가지는 태도에 대해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 비교

사회과 예비교사가 가지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법⁸⁾을 사용하였다.

8) PASW 통계 프로그램의 반복측정은 본래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횟수별로 반복적으로 다른 처치를 가한 후에, 처치 조건간의 평균 간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김효창,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응답자가 다섯 개 유형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인 종속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개의 종속 변수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의 통계방식을 활용하였다.

<표 IV-6> 사회적 거리감 반복측정

(I)사회적거리감	표본평균	(J)사회적거리감	평균차(I-J)	표준오차
외국인 노동자	32.29	외국인 결혼 이주자	-1.93***	.23
		장애인	-1.61***	.33
		북한이탈주민	-.88*	.37
		성소수자	.58	.53
외국인 결혼 이주자	34.22	외국인노동자	1.93***	.23
		장애인	.32	.30
		북한이탈주민	1.05**	.37
		성소수자	2.51***	.50
장애인	33.90	외국인노동자	1.61***	.33
		외국인 결혼 이주자	-.32	.30
		북한이탈주민	.73	.37
		성소수자	2.20***	.50
북한이탈주민	33.17	외국인 노동자	.88*	.37
		외국인 결혼 이주자	-1.05**	.37
		장애인	-.73	.37
		성소수자	1.47**	.54
성 소수자	31.70	외국인 노동자	-.58	.53
		외국인 결혼 이주자	-2.51***	.50
		장애인	-2.20***	.50
		북한이탈주민	-1.47**	.54

주: * = p<.05, ** =p<.01, *** = p<.001

분석 결과, 표에서 나타나듯이 각 소수자 집단 유형 별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값은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성 소수자 순으로 높았다.

사회적 거리감 점수 값을 서로 비교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05$).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거리감 표본의 평균차가 각각 -1.93 , -1.61 , -0.88 으로 낮았으며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점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결혼 이주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비교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01$). 외국인 결혼 이주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간의 평균 차이는 각각 1.93 , 1.05 , 2.51 로 나타나 외국인 결혼 이주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이들 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노동자, 성 소수자와 비교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001$). 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과 이들 두 집단 사회적 거리감 간의 평균 점수 차이는 각각 1.61 , 2.20 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이 외국인 노동자, 성 소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거리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05$). 북한이탈주민과 각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각각 0.88 , -1.05 , 1.47 로 나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노동자와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보다는 높고 외국인 결혼 이주자의 사회적 거리감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01$). 성 소수자와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차가 각각 -2.51, -2.20, -1.47로 나와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이들 세 집단의 사회적 거리감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소수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거리감 비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예비교사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노동자와 성 소수자보다 더 가깝게 느꼈다.

둘째, 사회과 예비교사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를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가깝게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유형별로 사회과 예비교사가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왜 다른지 원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수자 집단을 모두 동일하게 묶어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하위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회귀분석 모형

“사회과 예비교사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유형별 사회적 소수자 지인 여부,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강의 수강 여부, 강의 수강 횟수, 권위주의적 성향, 외현적 종교 성향, 내현적 종교 성향 등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⁹⁾

<표 IV-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회귀분석

구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
권위주의 성향	-.11*** (.02)	-.13*** (.02)	-.11*** (.02)	-.12*** (.02)	-.18*** (.03)
내현적 종교 성향	.04 (.10)	.03 (.08)	.11 (.09)	.06 (.11)	-.46*** (.12)
외현적 종교 성향	.13 (.10)	.13 (.09)	.02 (.09)	.18 (.11)	.36** (.12)
성별 (1=남자)	1.37 (.85)	.03 (.79)	1.11 (.78)	1.68 (.97)	-3.75*** (1.05)
각 소수자 유형별 지인 여부 (1=있다)	5.21*** (1.48)	3.55*** (.88)	2.41** (.75)	4.52* (1.96)	5.11*** (1.31)
소수자 인권 관련 수강여부 (1=있다)	-.73 (1.29)	-1.07 (1.20)	-1.55 (1.18)	-.60 (1.47)	-1.64 (1.60)
수강 횟수	.03 (.63)	.24 (.59)	.41 (.58)	.69 (.72)	-.08 (.78)
R제곱	.17	.21	.18	.13	.26
F	8.00***	10.71***	8.44***	5.80***	14.04***

주: * = p<.05, ** =p<.01, *** = p<.001

주: 각 셀의 숫자는 회귀 계수(B)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9) 위의 다섯 가지 사회적 소수자 유형 별로 분석하여 도출된 모형은 모두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2.52 이하로써 다중공선성 판정 기준인 10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해석되었다.
또한 다섯 가지 모형에서 잔차의 독립성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1.92~2.10으로 자기 상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회귀분석 결과는 F 값이 각각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 별로 8.00, 10.71, 8.44, 5.80, 14.04 로서 모두 유의한 회귀모델로 밝혀졌다($p < 0.001$).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거리감 회귀 분석의 결과 권위주의 성향과 지인 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 지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결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회귀 분석의 결과 권위주의 성향과 지인 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외국인 결혼 이주자 지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결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회귀 분석의 결과 위의 두 모델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성향과 지인 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알고 지내는 장애인 지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회귀 분석의 결과 권위주의 성향과 지인 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 지인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 가지 모델은 모두 권위주의 성향과 각 소수자 유형별 지인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지인 여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T 검증 결과와 동일하였다.

다섯째,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회귀 분석의 결과 권위주의 성향, 내현적 종교 성향, 외현적 종교 성향, 지인 여부, 성별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내현적 종교 성향이 낮을수록,

외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성 소수자 지인이 있는 경우, 여자인 경우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성 소수자 지인 여부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T 검 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V. 요약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 교육의 주체가 될 사회과 예비교사들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성 소수자로 나누고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어떠한 변인들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개로 분류한 사회적 소수자 유형 별로 지인 여부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지인 여부가 이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5개 유형 모두 지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소수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는 성 소수자 집단에서 유일하게 나타났는데 여성 사회과 예비교사가 남성 사회과 예비교사보다 성 소수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수강 경험 유무와 수강 경험 횟수는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유형별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법(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소수자 유형에 따른 5개의 사회적 거리감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과 예비교사가 외국인 노동자와 성 소수자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보다 크다. 또한 사회과 예비교사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를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장애인,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와 성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성향과 각 유형 소수자의 지인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성향, 성 소수자 지인 여부, 성별, 내현적 종교 성향, 외현적 종교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관측되었다.

2. 주요 발견점에 대한 논의

이하 글에서는 위에서 요약한 연구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주요 연구 결과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과 예비교사 양성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첫째, 대학교 내에 설치된 사회적 소수자 인권 관련 수강 경험과 수강 횟수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수자 차별이다. 교육과정 교과목 중에서 사회과는 이런 소수자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교육 영역이다. 또한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올바른 시민 양성인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차경수 외, 2008), 소수자에 대한 공정어린 시선을 가진 예비교사의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범대학교의 사회과에서 무엇보다 소수자 인

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현 사범 대학교 내의 개설 강좌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소수자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 강의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혹은 횟수가 아닌 교수 내용과 방법을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인지를 문제는 앞으로 사회과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범대학교 내 소수자 인권 관련 수업이 지식만 전달하고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켜 정의적 변화를 일으키는 수업 과정을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미 기존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송관재, 1997; 김상학, 2004; 이정우, 2007; 인태정, 2009; 조대훈, 2011)에서도 접촉 경험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고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접촉 경험으로 예비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자와의 단순한 만남 등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소수자의 삶을 이해하고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토론을 하고 대화를 통해 소수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업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수자 유형 중에서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성차(sex difference)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예비교사가 남성 예비교사에 비해 성 소수자에 대해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모두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본 연구에서 5개의 소수자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외국인 결혼 이주자는, 우리나라에

서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이지만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성’보다는 이들의 출신 ‘나라’와 ‘피부색’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성 소수자의 경우,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여성과 함께 ‘성적 약자’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성애주의’가 지배적 규범으로 간주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이성애주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이것은 남성 지배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조대훈, 2011). 따라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적 약자’로 살아온 여성들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성적 약자’인 성 소수자에게 남성에 비해 관대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에 반해 ‘이성애주의’를 거스르는 성 소수자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가 성 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성차를 가져온다면 대학교 내에 사회에서 당연히 되고 있는 ‘이성애주의’에 대한 담론을 강화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예비교사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비판사회학회, 2012).

셋째, 지인 여부와 더불어 권위주의 성향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모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인이었다.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서영석 외, 2006; 조대훈, 2011)에서도 나타난다.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서영석 외, 2006).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의 비주류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반(反)하는 대상으로 오인받기 쉽다. 하지만 이들 소수자를 사회가 성공적으로 통합할 때 오히려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가 새로운 가치와 어울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교육과정을 통해 심어주어야 한다.

넷째, 외현적 종교 성향과 내현적 종교 성향이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동성애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서영석 외, 2006; 조대훈, 2011)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외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성 소수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반면, 내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성 소수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원인으로 개신교(20.1%)와 천주교(9.9)를 모두 포함한 기독교가 전체 종교 중 30%를 차지해 전체 연구 대상자가 가진 종교 비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현적 종교 성향일수록 본래의 기독교 교회가 가지는 교리에 충실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원리를 삶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기독교 교리가 본래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서영석 외, 2006). 기존의 연구(Herek, 1993; 서영석 외, 2006; 조대훈, 2011)에서도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내현적 종교 성향의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더 보여 왔다. 반면에 외현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교리에 충실하기 보다는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를 위해서 또는, 교회 내에서 맺는 친교를 통한 즐거움 등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교리에 따라 성 소수자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에 충실한 내현적 성향의 사람들이 외현적 성향의 사람들보다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위의 연구결과에서 언급된 개인의 종교적 성향, 권위주의 성향 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들이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개인의 이러한 성향을 고려한 재사회화 교육 과정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에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문제 제기에서 제시되었듯이 사회적 소수자 유형 별로 사회적 거리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사회과 교육의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이 이제는 예전의 다문화 가정 중심이 아닌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들,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범대학교 내에서는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사회과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유형 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분류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수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하위 집단을 분류하고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실태, 특성 등을 살펴서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과 내용을 할애해 소수자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들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지되었던 접촉 가설이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 비용 등 사범대학교의 예비교사 양성과정이 가지는 한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을 가질 것인지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보통 사범대학교 4학년들이 수강하는 “교육실습” 외에 예비교사들이 가지는 실제적 교육 경험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접촉 경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유형을 크게 5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제 3국 출신의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부모 중 한 쪽이 북한 국적이 아닌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등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결혼 이주자를 부모로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부모의 국적과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학교 내 교육 성취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수자에 관련된 예비교사 연구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 또한 바뀌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전국 10개 대학의 사회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범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예비교사 양성 과정이 사범대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 타 학과의 교직 복수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좀 더 많은 실험군을 확보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교육이 전공인 예비교사와 다른 전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사회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201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한진수(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파주: 동녘.
- 오경석·김희정·이선옥·박홍순·정진현·정혜실·양영자·오현선·류성환·이희수·강희복(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파주: 한울아카데미.
- 이민경(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 방향성 고찰 : 서구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제2호, pp. 83-104.
- 조대훈(2014),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관점 분석, 『교육연구』, 제59집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 송관재·김범준·홍영오·이훈구(1997),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3권 1호, pp. 123-141.
- 구정화(2013),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5권 3호, pp. 31-53.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1권 7호, pp. 169-206.
- 김상학(2002),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적극적 조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윤경(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 초등 예비교사들의

-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9권 3호, pp. 147-183.
- 조대훈(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 : 다문화 교육과 교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제 43권 1호, pp. 205-237.
-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파주: 이담북스
- 이명진·최유정·최선헌(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 11권 1호, pp. 63-85.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pp. 339-370.
- 홍봉선·아영아(2011),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집 3호 pp. 165-187.
- 임도경·김창숙(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 일반』, 제19권 1호, pp. 5-34.
- 손상희(2005), 통합학급 아동의 장애급우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특성, 『특수아동교육연구』, 제7권 4호, pp. 147-170.
- 최원규·박현정(200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0권, pp. 69-105.
- 고은·목홍숙(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2권 4호, pp. 127-151.
-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4호, pp. 245-270.

- 차경수·조대훈(2012), 사회과교육의 도전과 전망, 서울: 동문사.
- 차경수·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 비판사회학회(2012), 사회학·비판적 사회읽기, 파주; 도서출판 한울
- 최충욱·모경환(2007), 경기도 초,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9권 4호, pp. 163-182.
- 권미은·권미지·이미아(2012), 예비특수교사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연구, 『특수교육』, 제11권 3호, pp. 5-25.
- 박선미·성민선(2011), 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적 인식에 미친 영향 : 인천시 다문화교육 지정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과교육』, 제50권 3호, pp. 1-15.
- 모경환·황혜원(2007), 사회과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사교육의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4권 2호, pp. 199-219.
- 황혜원(2012), 다문화주의 관련 쟁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제5권 2호, pp. 27-52.
- 김진철·장봉석(2010), 연구논문 : 초등 예비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3호, pp. 39-60.
- 천지영·김경은(2013), 교육대학원 중등 예비사회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적 효능감 분석, 『교사교육연구』, 제52권 3호, pp. 363-378.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 pp. 339-370.
- 한동균(2009),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교육의 의미와 접근법 : 차이의 지리학 적 접근과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 서영석·이정립·차주환(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1호, pp. 177-199.
- 고경은(2013), 다문화환경 초등학교에서의 접촉이론 적용가능성, 『학교사회복지』, 제1권 25호, pp. 255-274.
- 조대훈(2006),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8권 3호, pp. 211-241.
- 이정우(2007),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고정관념: 사회과 예비교사 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제39권 1호, pp. 153-178.
- 김효창(2013), 혼자서 완성하는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Parrillo, V. N. and Donoghue, C.(2005),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43, pp. 257-271.
- Herek, G. M. & Glunt, E. K.(1993), Interpersonal Contact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 30, No. 3, pp. 239-244
- Bogardus, Emory S.(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Jan-Feb), pp. 265-271.

Abstract

Social Studies Education Teacher Candidates' Perception of Social Minorities

Eunhye Noh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thesis, I examine the perceptions that teacher candidates who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at teachers colleges have on various social minority groups and how 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influence their perceptions. I further propose the future direction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eacher candidates in particular.

More specifically, I examin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1. How different or similar levels of social distance do teacher candidates have against various minority groups (immigrant workers, marriage (based) immigrants, disabled/handicapped, North Korean refugees, LGBTs)?

2. How do individual attributes such as gender, family income, and network ties with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fluence their levels of social distance against the minority groups?

3. Does taking classes on human rights for social minorities decrease the levels of social distance?

4. Are one's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religiosity associated with his/her levels of social distance?

To answer the questions, I conducted a survey on teacher candidates, juniors and seniors who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program at 10 teachers colleges in South Korea. Following previous research, social distance is measured using the APS (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and the Age-Universal I-E Sca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with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computer program. I provide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of T-test, ANOVA (one-way and repeated measur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First, neither taking classes on human rights for minority nor the number of classes taken are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social distance. It may imply that the current curriculums on human rights for minority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Second, gender difference is found associated with social distance against only one minority group, LGBTs, with females have lower levels of social distance against LGBTs. Third, for the levels of social distance against LGBTs, authoritarian attitude,

personal network ties with minorities, religiosity is found to influence social distance. Respondents with more intrinsic orientation toward religion and those with more authoritarian attitude have farther social distance against LGBTs while personal network ties with minorities and extrinsic orientation toward religion decrease the levels of social distance. Fourth, teacher candidates have longer social distance against immigrant workers and LGBTs group relative to marriage (based) immigrants, disabled/handicapped and North Korean refugees groups.

This study has a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 in that it provide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urrent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in particular, in teachers colleges. Future research needs to examine the processes why different groups of teacher candidate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various social minority groups. Furthermore,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 curriculums for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can effectively educate teacher candidates depending on various contexts and backgrounds.

부록 1 - 설문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에 예비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 포함된 질문은 정답이 없으며 응답하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연구자 : 노은혜(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 : 조대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다음 각 물음에 대해보기 중 하나만 골라 답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종교 ⑥ 무교

4. 귀하의 전공 배경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사범대학 지리교육 주 전공자
② 사범대학 역사교육 주 전공자
③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 전공자
④ 사범대학 타 학과(예: 국어교육, 윤리교육) 전공자이면서 사회과(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자
⑤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이면서 사회과(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자

5. 귀하는 전공교육과정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 개념과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5-1. (위에서 “② 있다“ 택한 분만) 강의를 들은 횟수는 대략 몇 번입니까?(1회 60분 기준)

-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이상

6. 귀하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인(가족, 친척, 친구, 동료)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7. 귀하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인(가족, 친척, 친구, 동료)중에 외국인 결혼 이주자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8. 귀하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인(가족, 친척, 친구, 동료)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9. 귀하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인(가족, 친척, 친구, 동료)중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6. 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내 가족 중 한 명과 결혼한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결혼 이주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항	점수
1. 나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에 외국인 결혼 이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내가 같은 동호회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이웃하여 산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가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가 내 가족 중 한 명과 결혼한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항	점수
1. 나는 장애인과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에 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장애인과 내가 같은 동호회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장애인과 이웃하여 산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장애인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장애인과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장애인이 내 가족 중 한 명과 결혼한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	--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항	점수
1.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에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내가 같은 동호회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웃하여 산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내 가족 중 한 명과 결혼한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항	점수
1. 나는 성소수자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에 성소수자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성소수자와 내가 같은 동호회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성소수자와 이웃하여 산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성소수자가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성소수자와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12. 아이가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3. 사람의 가치는 얼마만한 성취를 이루었느냐에 달려 있다.	
14. 어린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태도이다.	
15.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16. 관혼상제는 남부럽지 않게 치러야 한다.	
17. 사회범죄를 뿌리 뽑는데 있어 우리 사회의 법만으로 부족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18. 우리 사회에서 '성(性) 문란' 이 가장 큰 도덕적 타락이다.	
19. 원래 나쁜 사람에게는 잘해 주어도 소용이 없다.	
20. 요즈음엔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1. 요즈음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한다.	
22. 배우자를 선택할 때 '궁합' 은 중요하다.	
23.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된다.	
24.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옳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25. 내 자식은 '맞고 들어오는 아이' 보다는 '때리고 들어오는 아이' 로 키우겠다.	
26. 경쟁에서는 우선 이기고 볼 일이다.	
27.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	
28. 간통을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	
29.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	
30.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나눌 수 있다.	
31.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32.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사원이다.	
33. 사람들은 '내 편' 아니면 '적' 이라고 볼 수 있다.	

12. 기도는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13. 내가 비록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일상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			
14. 나는 대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당에 간다.			
15. 나의 인생관은 전적으로 종교에 기초하고 있다.			
16.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주로 예배 당에 간다.			
17. 나는 주로 '기도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18. 나는 비록 종교를 믿지만,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